

학생부종합전형 FAQ

2015.08.15

들어가며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았던 자료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언제든지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르비에 글을 올린 뒤 참 많은 학생들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 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묻는 것을 뽑아 FAQ형식으로 자료집을 만들어 배부합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및 입시 컨설팅을 따로 진행하고 있는지라 제 학생들에게처럼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해봅니다.

수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술

최저 유무, 내신 반영비율에 따라 변칙적인 전형.

학생부전형

사실상 내신을 보는 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진정한 의미의 학생부종합, 즉 제대로 된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

외고/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일부 일반고 학생들 중 과학 or 외국어에 능한 학생에게 유리. 내신 큰 의미 없음.

논술과 특기자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논술은 학교별로 내신 반영비율과 최저 유무에 따라 변칙적인 전형입니다. 즉,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의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면 다소 글을 못쓰는 친구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대학의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면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본인이 다소 내신이 부족하거나 수능에 약하더라도 논술을 잘 하는 학생이라면 그러한 대학의 전형을 찾아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들어가며

특기자는 널리 알려져 있듯, 외고/특목고 학생들에게 월등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각 학교마다 특기자 전형이 설치되어있으며, 일부 일반고 학생들 중 과학이나 외국어에 능한 학생들에게도 한번쯤 도전해볼만한 전형이지요.

여기까지는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학생부전형에도 두 가지 성향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존재합니다. 즉, 내신을 보는 전형과, 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내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혼재합니다.

2015년 수시부터 이를 학생부교과전형 / 학생부종합전형을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듯 하나 일부 대학들은 전형명을 어렵게 써놓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부 전형에서는 교과를 중심을 보는 전형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자만을 논하며, 교과를 중심으로 보는 학생부교과전형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신이 월등히 좋은 학생에게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추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내신

Q1) 내신이 ~ 이정도 인데, 어느 학교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을 넣어볼 수 있을까요?

Q2) 내신이 좋지 않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을 넣어볼 수 있을까요?

A) 학생부종합전형의 큰 취지는 바로 ‘정성평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주로 묻는 질문입니다. 물론 내신은 평가의 지표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내신이 절대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신 말고도 다른 것도 정성들여서 평가해주겠다.” 가 이 전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甲 학생은 내신이 1.3 정도로 우수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쓴 항목 중에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인재상도 그다지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 일치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반면 乙 학생은 내신이 2.3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지난 고등학교 3년 동안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고려대학교가 원하는 진취적이고 선공사후적인 정신까지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는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을 비교하였을 때, 甲 학생은 내신(성실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전공적합성이나 인재상의 일치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겠지요. 乙 학생은 내신(성실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전공적합성, 인재상의 일치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두 학생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신이 어느 정도인데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정성평가 항목 중 내신 관련해 너무나 낮은 점수가 예상되는 학생에게 언제나 학생부종합전형을 추천하기는 어렵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내신이 매우 높은 학생에게는 자신의 장점(내신)이 뚜렷하게 나타내 보일 수 없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편 내신이 낮지만 나머지 항목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얘기가 참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어서 내신과 관련된 질문은 어느 누구라도 답을 내려주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얼마나 승산이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스펙

Q) 제 스펙이 ~ 이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느 대학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Q2) 제 스펙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학생부종합전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A)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스펙이란,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3년 내내 학급 회장도 하고, 마지막에는 전교회장까지 했는데 어느 대학교 경제학과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3년 내내 교내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수상까지 했는데 어느 대학교 경제학과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 할 수 있을까요?”

“내신이 상승세입니다 or 내신이 하락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초창기 시절에나 통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꾸준함’ 과 ‘전공적합성’ 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단순히 상승세라는 이유로, 혹은 하락세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꾸준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학급 회장이나 전교회장을 했다고 리더십이 드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도 두 학생을 비교해봅시다. 아래의 두 학생은 모두 모 대학교의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甲 학생은 3년동안 학급 회장을 도맡아 하고 봉사상 까지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전교회장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의 기간 동안 교내 경시대회란 경시대회는 모두 나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乙 학생은 학급 회장이나 전교회장을 한 경력은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경제동아리를 창설하여 활동해왔습니다. 본인이 동아리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포트폴리오로 정리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체적으로 졸업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방학 때는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에게 메일을 직접 보내 자신의 논문을 보내 지도를 받았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스펙

그리고 이러한 이력들을 담임선생님께 부탁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습니다.

두 학생의 내신이 비슷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더욱 선호할까요? 이 두 학생의 스펙을 비교했을 때 어떤 학생이 좀더 전공적합성을 보여주는걸까요?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최근 진화론을 하스스톤이라는 모바일 게임에 적용시켜 연구를 한 고등학생의 논문이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블리자드 한국지사 부사장 및 카이스트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그 고등학생을 언급하며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정작 그 학생은 교내 논문 경시대회에 나가 ‘게임’을 주제로 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수상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상을 했다면 더 좋겠지만요.) 더욱이 일반적인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그다지 큰 스펙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스스톤에 진화론을 적용시켜 연구했던 고등학생처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즉,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전공에 대해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지가 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말씀들 일전에 드렸었던 것입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뛰어난 학교의 재력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지요. 하지만,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점수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감수하고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특목고 학생들 간의 그 밸런스는 어느정도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대한 이해도와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그러한 고민들이 바탕이 된 활동들만이 유의미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들을 객관화 시켜 답하는 형식으로 이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이야기 밖에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입시 컨설팅을 받으러 가기 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이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게 쪽지를 주시는 학생분들 또한 마찬가지.)

분명히 이 글을 올리고 나서도 불안한 수험생들은 오르비에 이렇게 물어볼겁니다.

‘고려대, 연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애들 내신만 보고 일단 먼저 자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식의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이라면 질문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내신이 2.5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경제학과를 위해 다른 고등학생들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있다. 또 내신 중에 영어 성적은 떨어지지만 경제학에 꼭 필요한 수학 성적은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승산이 있다. 따라서 난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후에 궁금한 점을 입시컨설팅 회사나 오르비에 있는 선배들에게 물어봅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법입니다. 만약 제가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전하겠다는 그 결심마저 선생님이나 선배들 같은 타인의 결정에 맡겨버렸다면, 아마 합격의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학생부종합전형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은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 혹은 입시 컨설팅 회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결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짤 때 입니다.

모쪼록 이 글이 객관적이지 못한 정보 해석으로 인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